***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1]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A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직장인 연말정산 자료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1,618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3,172만원(월 264만원)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나는 평균 이하의 사람이구나', '학창시절 반 평균 올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평균 깎아 먹는 사람이 됐다', ‘내 봉급이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은 되는 줄 알았는데 평균도 안 되다니' 등등 자조적인 반응이 게시판을 가득 채웠다. ‘숫자를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확인 결과 수치는 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 평균치는 연 3,172만원이었고, 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인이 10명 중 6명 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봉급생활자가 상위 5% 안에 들려면 연봉이 8,50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봉이 1억 3,500만원은 되어야 상위 1% 수준에 들 수 있었다. 상위 0.1% 커트라인은 연봉 3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전국 1만 5,990명의 평균 연봉은 6억 6,256만원이었다. 봉급만 가지고도 슈퍼리치의 반열에 오를 만한 상위 0.01%의 커트라인은 연봉 10억원 정도에서 형성됐는데, 이들 ‘봉급 슈퍼리치’들은 1,868명이었고, 평균 18억 7,637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소득 하위 10%의 평균 소득은 연간 185만원(월급으로는 약 15만 3,000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평균소득의 60배에 달하는 것이다.

(나) 성인 남성 1만 명을 무작위로 뽑아 몸무게를 측정하게 되면, 그 몸무게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근처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몸무게는 소위 통계의 정규 분포를 따르며, 대부분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오는 몸무게 근처에 몰려 있다. 이 분포는 잘 알려진 종형 곡선(bell curve)이다. 중간 값에서 위아래로 멀리 떨어진 점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정규 분포 곡선에는 ‘표준 편차’가 있다. 표준 편차는 몸무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통계 계산으로 실제로 구할 수 있다.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몸무게는 70kg이고, 표준 편차는 아마 7, 8kg일 수 있다. 정규 분포 곡선의 정의에 따르면, 분포 곡선의 중심에서 양 끝 쪽으로 표준 편차의 여러 배 떨어진 곳에 해당하는 몸무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수집 데이터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이 나타나는 ‘최빈값*’과 모든 데이터의 정확히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중앙값**’이 종의 꼭대기인 ‘평균값***’과 일치한다.

* 최빈값: 가장 많이 관측되는 수, 즉 주어진 값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값
** 중앙값: 어떤 주어진 값들을 크기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
*** 평균값: 모든 관측값을 더해서 관측값 개수로 나눈 것

(다) 일개미 집단에서 20%의 일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놈들은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20%의 일개미들만을 따로 한 곳에 모아 놓았더니 마찬가지로 그 중 20%의 일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놈들은 놀고 있었다. 이것이 일명 ‘80:20 법칙’이라고 불리는 파레토 법칙의 전형이다.

파레토의 법칙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대부분의 인간 행위는 사회성을 띠며 때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경제학보다는 사회학에 의해 인간행위가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가설은 ‘사회는 상호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된

하나의 전체이며, 따라서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다른 부분들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20%의 인구가 총수입의 80%를 벌어들이고 소유한다'는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다. 이 외에도 '전체 매출액 중 80%의 매출은 상위 20%의 제품에서 나온다', '전체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올려준다', '일의 성과 80%는 집중해서 일한 20%의 시간에 의해 달성된다', '전 세계 에너지의 80%는 20%의 국가가 소비한다' 등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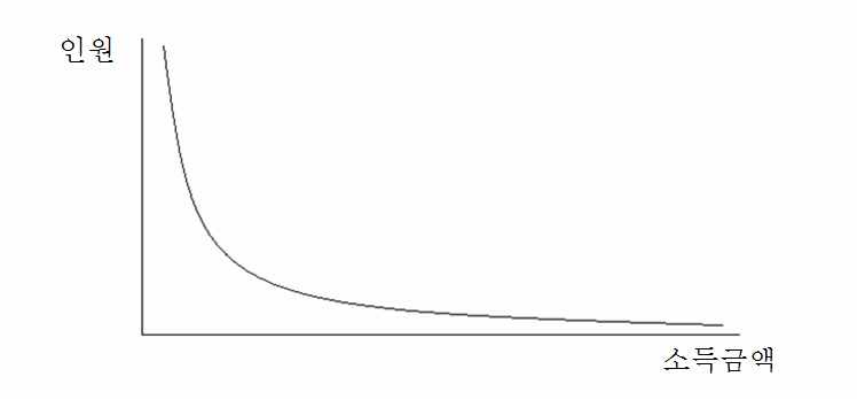


그림 1 소득의 파레토 분포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A의원의 발표가 수치적으로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생긴 이유와 10명 중 6명이 평균보다 연소득이 낮은 이유를 제시문 (나), (다)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500자, 40점)

■ 모범답안

제시문 (가)에서 A의원이 발표한 평균 소득과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평균 소득이 다른 이유는 평균값과 중앙값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A의원은 평균 소득을 1,618만명의 소득을 모두 더한 후, 이를 1,618만으로 나눈 평균값으로 발표하였다. 반면 수치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평균 소득을 1,618만명 중 소득 순위가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인 중앙값으로 생각하였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값과 중앙값이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소득 분포는 20%의 인구가 총소득의 80%를 벌어들인다는 파레토 법칙을 따르고 있다. 즉, 소득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평균값과 중앙값을 동일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소득 분포에 있어서 소수의 봉급 슈퍼리치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소득의 영향으로 인해 중앙값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10명 중 6명의 연소득이 평균값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488자)

■ **채점기준(40점)**

배점	근거
36-40	1) A의원은 연소득의 평균값을 발표하였고, 수치가 이상하다고 반응한 사람들은 이를 중앙값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임을 밝힌 경우. 2) 소득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님을 밝힌 경우. 3) 소득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므로 평균값을 중앙값과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됨을 밝힌 경우. 4) 소득 분포에서 봉급 슈퍼리치의 영향으로 인해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높음을 언급한 경우 또는 소득 분포가 파레토 법칙을 따름으로 인해 20%의 상위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80%를 차지함에 따라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높음을 언급한 경우
31-35	1)~4) 중 어느 한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26-30	1)~4) 중 두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21-25	1)~4) 중 세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20이하	▫ 1)~4) 중 네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 250자 미만은 0점 처리

■ **지분출처**

- 제시문 (가) : <한국일보>, 직장인 평균 연봉 3172만원인데...10명 중 6명이 왜 평균 이하일까, 2015.9.7.
  <jtbc>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원...평균치 맞나?, 2015.9.7.
- 제시문 (나) : 마크 뷰캐넌, 《내일의 경제》, 사이언스북스, pp.134-137.
- 제시문 (다) : 피터 피츠사이몬스, 《재미있는 세상의 법칙들》, 소리울림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2]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사회를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라고 보는 관점을 사회실재론이라 한다. 즉,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이고 따라서 개인은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그 구성원인 개인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구조나 사회의식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초월하는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 사회실재론은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해야한다고 본다.

사회명목론에서는 사회가 그저 개인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라는 입장이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양식이다. 따라서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는 전적으로 개인이 수행하는 행동과 그 결과의 산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단위는 각 개인일 뿐이고,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행위 양식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이 사회구조와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나) 정크푸드 등의 유해식품에 대해 비만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OECD는 지난 2월 '글로벌 식품 및 농업을 위한 대안적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생산.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좀 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로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각국에 정책을 권고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고지방 음식 및 정크푸드 등의 유해음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엔 프랑스도 내년도 정부예산법(안)에 정크푸드에 대한 세금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재무부가 정크푸드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세를 제안할 계획임을 밝힘으로써, 정크푸드세가 이번 가을 국회에서 2017년 정부예산법(안)과 함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칼로리나 영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를 적용하게 되면 정크푸드의 소비자가격이 1~8%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만에 따른 사회보장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 등의 경제부담은 비만증 128억 유로, 과체중 77억 유로 등 총 204억 유로로서 GDP의 1%에 달한다. 비만증은 당뇨, 고혈압, 관절, 호흡질환, 암, 우울증 등 합병증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 사회 비용이 기타 질환보다 22%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비만세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한 덴마크다. 덴마크에서는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모든 음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2011년에 도입했으나 국내 식품기업에만 막대한 손해를 안긴 채 1년 만에 폐지됐다. 실제 효과는 미미한 대신 국민들이 부가세가 없는 인접 국가로 가서 식품을 구입해오는 부작용만 생겼기 때문이다.

(다) 영화 <더 리더>이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독일. 15살 소년 마이클은 열병에 걸려 길 한복판에서 심한 구토를 일으키고, 그 앞을 지나던 여인 한나 슈미트는 그를 도와준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마이클은 알 수 없이 냉담한 여인 한나 슈미트를 이해하기 위해 애쓴다.

그녀는 어느 날부턴가 책을 읽어줄 것을 부탁하고, 소년은 여러 권의 책을 읽어준다. 어느 날 그녀는 어떤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다. 8년 후 법대생이 된 마이클은 수업을 위해 참관한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장에서 한나 슈미트를 발견한다. 그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크라카우 근교의 작은 수용소에서 2년 동안 여성 경비원으로 일했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마이클은 한나 슈미트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나치 수용소의 감시원으로서 살인을 저지르고, 게다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 쓴 채 종신형을 받는 것을 목격하지만 침묵한다. 이후 법학자로서 마이클은 한나 슈미트를 지켜주지 못한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을 녹음해 그녀에게 보낸다. 한나 슈미트는 그 녹음을 통해 마침내 글을 읽게 되지만, 사면되던 날 아침 한나 슈미트는 스스로 목을 매단다.

<타임> 은 “한나 슈미트의 문맹이, 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대량 학살에 대한 독일인의 자발적인 무지를 상징한다.”고 썼다. 한나 슈미트가 문맹이라는 사실, ‘인류 문명의 집결소’인 ‘책’에 그녀가 눈멀어 있었고 그처럼 무지한 상태의 노동계급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 과연 그녀를 무죄 처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원작에서 한나 슈미트는 재판 도중, 왜 지멘스 회사를 그만두고 친위대에 들어갔냐는 재판장의 힐난 어린 질문 앞에 멍해진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은… 하지만 재판장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멘스에 취직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인가?” 이 장면이 주는 통렬함은 대단하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질문을, 그녀 자신이 필사적으로 선택한 삶의 행로의 중요성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녀가 아는 언어는 규칙과 명령체계에 종속된 언어였다. 들을 줄은 알지만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의 ‘의지와 사유와 행위’를 비좁게 규정지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된다. 아이히만이 그랬듯 ‘나는 톱니바퀴의 하나의 이에 불과했다’는 주장,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수백만명을 가스실로 보내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정의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행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나 아렌트는 “그것이 범죄인 한 그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의 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상관없이 법정에서는 즉시 범죄의 수행자, 즉 인간으로 변형된다”라며, 단호하게 아이히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한나 슈미트의 내면을 엿본 우리 역시 이 모든 것에 눈감고서라도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전적으로 옳은 걸까.

[문제2] 제시문 <가>의 사회실재론이나 사회명목론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문 <나>의 비만세 도입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시문 <다>에 드러난 한나 슈미트의 행동을 평가하라.(800자, 60점)

■ 모범답안A

비만은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개인의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회를 개인들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로 파악하는 사회실재론의 주장처럼, 어떤 개인도 언어, 전통, 사고방식, 지향 가치, 의식주 등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사회는 게으름과 식탐에 혐의를 두어 비만한 개인을 비난하곤 한다. 그런데 과연 비만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

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가? 오히려 비만은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구조적인 환경을 전제로 식품산업, 빈곤,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만세 도입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무책임하게 전가하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진일보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실재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나의 행위는 전체주의적 폭정의 시기였다거나 프롤레타리아로서 문맹이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사고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강압 아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행위의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한나의 행위로 인하여 수백명의 유태인들이 죽지 않았던가? 이런 관점에서 한나의 행위는 답이 아니라 의문에 가깝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 안에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자신의 행동이 어떨 결과를 낳을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야만 한다. 사회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확보하는 일, 한나의 고민은 거기서 시작되어야 했다.

■ 모범답안B

사회명목론에서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양식이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의 산물로 파악한다. 사회명목론의 관점에서 볼 때 비만은 개인의 문제다. 비만을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구조적인 환경을 전제로 식품산업, 빈곤, 환경 문제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사회실재론의 견해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결국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먹을까, 먹고나서 어떻게 생활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만세 도입은 부당하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한 개인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 즉 사회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이 비만인 것도 아닌데 그러한 음식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처사다. 더구나 덴마크의 예에서 보듯이 비만세는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낳지 않았는가? 비만이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비만세는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명목론의 맥락에서 한나의 행위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녀 개인의 몫이다. 한나가 문맹이었던 것이 개인의 특수성이었듯이 그녀의 행위는 전적으로 그녀의 판단이며 책임이다. 한나 자신도 수백명의 유태인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문맹이었던 한나, 당시 대다수 독일 국민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전체주의의 광풍 아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한나의 행위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긴장, 견제를 위한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 **채점기준(60점)**

배점	근거	
	A	B
60-54	1)사회실재론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나? 2)사회실재론의 관점에서 비만세 도입을 판단하고 있나? 3)사회실재론의 관점에서 한나의 행위를 파악하고 있는가? 4)그것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1)사회명목론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나? 2)사회명목론의 관점에서 비만세 도입을 판단하고 있나? 3)사회명분론의 관점에서 한나의 행위를 파악하고 있는가? 4)그것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53-47	1)-4) 중 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	
46-40	1)-4) 중 두 항목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	
39-33	1)-4) 중 세 항목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	
32이하	▫ 1)-4) 중 어느 것도 언급되지 않거나 부실한 겨우 ▫ 400자 이하: 0점 처리	

■ **지문출처**

제시문(가): 이진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pp.63-64

제시문(나): 이성규, 비만세 도입하는 국가 늘어난다, <Sciencetimes>, 2016.10.13.

제시문(다): 김용언,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 고통의 역사에 구경꾼의 역할을 묻다,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55446.